

박지원-김동철-박주선 '미묘한 삼각관계'

지역 당권주자 '3인방' 경쟁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대회에서 대표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진 광주·전남지역 당권 주자 3인방(박지원, 박주선, 김동철 의원)의 복잡한 미묘한 관계가 새삼 화제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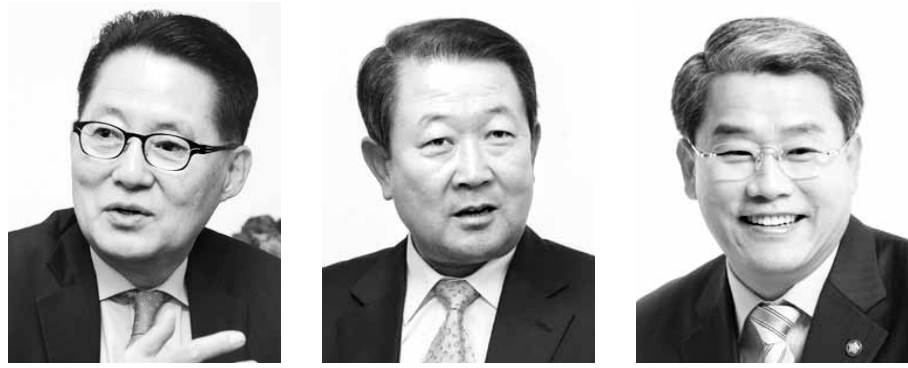
우선 이들은 국민의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했다. 박지원 의원은 공보수석을 거쳐 비서실장을 역임했고 박주선 의원은 법무비서관을, 김동철 의원은 정무기획비서관을 지냈다.

여기에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했던 이들의 정치적 노선도 진보보다는 중도를 지지하고 있다. 당내 친노(진 노무현) 세력과 대결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도 비슷하다.

이러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당권 도전을 놓고 이들은 복잡 미묘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우선 박지원 의원과 박주선 의원은 평소 호형호제하는 사이지만 호남 대표성을 놓고 미묘한 경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실제로 전남대회를 앞두고 박주선 의원은 지난 16일 광주 김대중센터에서 '호남 정치력 복원'을 주제로 강연을 했으며 박지원 의원은 같은 주제로 오는 26일 전남대에서 강연을 나설 계획이다.



박지원 의원 박주선 의원 김동철 의원

'국민의 정부' 시절 청와대 함께 근무 인연도 호남정치력 복원 정권창출 위해 단일화 여론

특히, 박주선 의원은 16일 강연에서 문재인 의원의 '대권 도전 불가론'과 함께 박지원 의원의 비상대책위 참여를 강력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박지원 의원은 26일 전남대 강연에서 박주선 의원의 비판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박지원 의원과 김동철 의원의 관계도 원만치 않다. 그동안 김 의원이 박 의원에 각을 세우는 경우가 많았다. 청와대에서 비서실장과 정무기획비서관으로 함께 근무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외라는 평가다.

이를 반영하듯, 김 의원은 당권 도전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 박 의원에게 '2선 후퇴'라는 직격탄을 날

리고 있다. 그동안 청와대 비서실장과 장관, 원내대표 등의 요직을 두루 지낸 만큼 이제는 후진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당의 현실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박지원 의원 측에서는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이다. 호남 정치력 복원과 차기 정권 창출을 위해 서로 힘을 합쳐도 아쉬울 판에 서로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박지원 의원 측 관계자는 "정권 창출의 절실함과 진정성을 토대로 당권 도전을 검토하고 있다"며 "비판과 비난은 구별되어야 하며 상대의 진정성을 이해하려 해야 본인의 진정성이 빛나는 법"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 지역 정치권에서는 광주·전남 당권주자들이 같은 구조에 매몰되기 보다는 호남 정치력 복원을 통한 정권 창출이라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당권주자로서 공동 공약 제시 등을 통해 플러스 경쟁 구도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호남 정치력 복원은 같은 구조로는 안 된다"며 "당당한 비전 경쟁으로 호남 정치의 자존심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문희상 새정치 비대위원장

"선거구 확정 논의"

'제3기구' 설치해야'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선거구 확정 및 선거구제 개편 논의의 관련,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는 제3의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권위자, 전문가 중심으로 선거구 확정위를 만들고, 그 근거를 법으로 만들고, 그 관리를 선관위에서 하는 게 최적안"이라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공클럽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위원장은 비노 진영을 중심으로 거론되는 분당 및 신당 창당론에 대해 "그 분들 중에서 한 분도 탈당한 분이 없다. (분당론) 실제로 어렵다"며 "그 분들이 창조력을 발휘해 당 살리는 일에, 분당이 아닌 구당에 좀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 분들의 전제는 어느 분(문재인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분당될 거란 것"이라며 "있을 수 없는 논리로, 그것이 특정세력 배제를 의미한다면 민주정당의 본질을 어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차기 대선 출마 문제에 대해선 "(3년 뒤) 사무총장 임기를 마치고 민심에 따라 불림을 당하면 관철되지만, 유엔 가서 잘하는 분을 들었다 봤다 하면, 그분도 사람인데 마음이 안 흔들리는 보장이 없고 국익에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라며 "어든 야든 알가알부 말고 모실 마음이 있으면 가슴에 간직했다가 대통령 선거 때 얘기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지역 소통 공감 릴레이'

국민통합위 오늘 광주서

5·18민주묘지 참배도



대통령 소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옥·이하 대통합위)가 19일 광주를 찾아 '지역소통 공감 릴레이'광주를 진행했다. 대통합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충남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2개 지역을 방문해

공감 릴레이를 진행 중이다. 한광옥 위원장 등 이번엔 광주를 찾는 대통합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광산구 '타벌터라' 노인복지관을 방문한다. 이어 오후에는 광주시청에서 '국민통합 광주지역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윤정환 광주시장을 비롯해 광주 지역 시민단체·언론·종교·경제·교육계 인사 50여 명이 참석해 국민통합과 관련해 의견을 주고 받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사자방'·공무원 연금

여야, 국조 합의 실패

여야 원내대표는 18일 주례회동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및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산업) 국정조사에 대해 이견 조율이 나섰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 연내 처리를 강력 주장했지만,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사회적 합의 체 구성이라는 논의에 돌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야당은 사자방 국조 및 개혁 특위 구성의 연내 구성을 완강히 주장했으나, 여당은 이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맞섰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주례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얘기했더니 야당은 사회적 합의체만 얘기했다. 활동 시간을 정확하게 못박지 않고 이해 관계자만 불러들여서 결국 시간만 끌다가 무산시키려는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사자방 국조는 정의의 문제이고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는 일반적 현안이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 놓고 협의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맞섰다. 그는 또 공무원연금 개혁 및 사자방 국조 '빅딜' 성사 가능성에 대해 "생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것은 빅딜 문제가 아니다"며 "자족(새누리당)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시작은 좋았지만...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 지도부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여야, 신혼부부 임대주택 연일 '공짜' 공방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놓은 '신혼부부 임대주택 우선공급 정책'이 연일 정치권의 쟁점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이 이 정책을 '무상 포퓰리즘'의 범주에 포함해 연일 비판하자 새정치연합은 18일 "공짜가 아니다"라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자 새누리당도 "야당이 일부러 모호하게 얘기해 공짜인 것처럼 국민을 현혹했다"고 반격했다.

새정치연합은 신혼부부 임대주택 우선 공급은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신혼부부에게 우선순위를 준다는 의미라고 강조하면서 "새누리당이 거짓말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도부가 전면에 나서 해명을 하는 동시에 이를 '공짜'로 표현한 일부 언론사에 대해서는 언론중재 위 제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

당과 일부 언론이 무상 딱지를 붙이고 복지 포퓰리즘이라 비판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신혼부부에게 집을 무상으로 주는 게 아니라 더 싼 값에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자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도 신혼부부, 대학생에 14만 가구의 행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면서 "명백한 사실도 정략적 차원에서 왜곡하는 일은 더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광주전남 새마을금고 경영평가대회 대상 수상기념

담보대출 100억 특별 한시판매

자산건전성 8년 연속 1등급 달성!

☑ 근저당권 설정비 면제 ☑ 담보감정 평가 수수료 면제

최저 연 3.5%~

근로자, 직장인 신용대출 최고 1억원
햇살론 대출 최고 2천만원 아파트 전세 보증금 대출 최고 80%

MG금남새마을금고

대인본점: 223-8007, 232-7251
총장지점: 223-7217, 223-7218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유인메디카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클리코엔 (N) 골드

가격대폭 할인행사중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lucose를 조절합니다

식후 2캡슐씩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식후 혈당상승 억제!!

- 식후혈당상승억제에도움을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않을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주)유인메디카에서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dsm NAVER 백세생활건강을 검색하세요
전화 1899-3975 H.P 010-3598-7080

새롬행정고시학원 www.gjserom.com http://cafe.daum.net/gj8111

새롬공인중개사전문학원

광주본원 서구청앞 361-8111

전국 최대 규모의 프랜차이즈 학원 새롬행정고시학원

전/국/최/강 새롬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민법 백현 학과론 임진택 공법 이강일
중개법 홍득기 공시법 안규재 세법 임기원

개강 11월 10일 주부반 11월~12월 기초과정과목 강의합니다.
성인반 인터넷 동영상수업은 무료

합격을 위한 선배강사들이 추천한 1등학원 합격을 위한 새롬만의 차별화된 시스템

- 최고의 교수진으로 강의 질하는 학원 1위
- 민원과 신뢰를 주는 학원 1위
-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력 1위

"새롬" 전국 수석합격자 2명 배출

합격을 위한 새롬만의 차별화된 시스템

- 합격을 위한 핵심강의 모의연습문제
- 7월~9월 - 11월~12월 - 1월~3월 - 4월~6월
- 7월~9월 - 11월~12월 - 1월~3월 - 4월~6월
- 7월~9월 - 11월~12월 - 1월~3월 - 4월~6월
- 매월 1일은 정규 개강일입니다.

광주새롬학원에서 제 15회~제 24회 시험까지 2000여명 합격자 배출!

직업상담사 특강(주·야)

학원홈페이지 한글숙스 검색 광주새롬행정고시학원
학원카페 다음카페 검색창 광주새롬행정고시학원

새롬 행정고시학원 광주 농성동 서구청앞광주역역 2층 본원 ☎ 361-8111